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문화도시’ 사업 공모 마감이 7월24일로 다가왔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은 2022년까지 30개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해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에 걸쳐 최대 200억원(국비와 지방비 매칭 각 50%)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작년 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7개 지자체(부천·원주·천안·청주·포항·영도(부산)·서귀포)가 사업을 시작했다. 10개 지자체는 예비문화도시로 추가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이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에 매달리

‘문화도시’의 길

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을 가질 수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문화 관련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사업은 충분한 매력을 갖는다. 다음으로 기초생활권 차원에서 문화 영역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관철은 손익계산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여 개 내외의 지역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그중 기초문화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설립 이후에도 재단의 방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재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것은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과열 양상과 대응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공모 절차나 사업 실행을 더 세밀하고 뉘뉘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공모 과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하향식의 일방적 공모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공모의 모델을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가 작은 공간과 사례, 사람이 얽히고설린 곳이어서 개별적인 사업으로만 접근하면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사례는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과 주제와 사례들을 어떻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연결하고 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와 문화자원이 이야기기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콘텐츠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잠시 지역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지역문화 활동의 실질적인 주체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문화도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쁜 사례는 걸러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무시한 채 공공기관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주도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상정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애초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문화도시’는 ‘예술도시’와는 다르다. 문화도시는 도시의 체질이 ‘문화적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 지역 축제가 늘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서 개별적인 사업으로만 접근하면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사례는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과 주제와 사례들을 어떻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연결하고 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와 문화자원이 이야기기 되고 자연스럽게

종교칼럼

충성(忠誠)의 삶



임형준
순천 빛보교회 담임목사

어찌저 ‘충성’이라는 단어는 애국심과 함께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애국심은 그 대상이 국가와 민족일 때이지만, 충성의 대상은 일터나 가정일 수도, 다른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또한 충성의 대상이 국가나 사람이 아닌 정이나 신념 같은 정신적인 목표인 경우도 있다. 어떤 가치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은 신념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충성의 범위는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며 다양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신실한 성품을 충성스럽다고 한다. 충성은 어떤 대상을 향하고 그 충성도를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공적으로 평가한다. 재물, 실력, 인기, 명예가 얼마나 많고 높은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성공적인 업적은 순수한 자기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타고난 건강이나 자기가 처한 사회 환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생의 성공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인프라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펙으로 우월적인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기를 추구한다. 이처럼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성취의 결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세상은 출발부터가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을 가르쳐 준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조한 마태복음 25장 14-30절을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각자 능력대로 맡기고 떠난 이야기가 나온다.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결산하는데 달란트를 배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라며, 종들을 평가할 때 ‘충성된 상태’를 평가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요인으로 얻어진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즉, 충성의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평성을 제시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공을 평가받는 불공정의 출발이 아닌, 거저 없이 착하고 충성된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상은 희망이 있다. 충성으로만 삶을 평가받는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닌, 도전하고 싶고 가고 싶은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창조주는 그런 소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준다. 이것은 믿을 만한 가치임을 우리 자신은 금방 잘 알고 느낀다.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에 충성하는 삶을 과연 우리들은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 충성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은 이상하게도 증거를 댈 수 없는 곳에서부터 생겨나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에 적합한 지 못할 때가 있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열망과 의욕을 솟아나

게 한다. 믿음의 확신은 여러 가지 마음을 유혹하는 욕망을 밀쳐 내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 매일 마음을 다해 그 일에 빠져들게(정진하게) 하여, 비로소 숙련이 주는 맛스러운 충성의 삶에 도달하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충성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자기 안위와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충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아닌 마음 그 자체이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호흡이요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삶의 과정과 흔적을 중요시하는, 즉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면, 산고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얻듯이 우리의 미래는 긍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전환의 시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社說

동부·서부권 협력해 의대 유치 성사시켜야

‘30년 숙원’인 전남 지역 의대 유치가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여당이 15년간 동결해 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약한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배경으로는 광주와 대전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 공공의료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원 확대 규모와 추진 방향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의 필요성은 그동안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1.9%로 전국에서 가

장 높은 데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응급 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의료 수요는 많은데도 1만 명당 의사 수는 24.7명으로 전국 평균(28.9명)보다 4명 이상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매년 78만 명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 대학병원을 찾는다. 의료비 역의 유출액도 1조 3000억 원이나 된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 운동은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30년이 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남권과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으로 갈려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제 동부·서부 할 것 없이 뜻을 한데 모아 치밀하게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 아무리 유치 명분이 좋더라도 지역 내 의견 수렴이 안 되고 갈등을 빚는다면 의대 유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갈등 접고 민생 현안 챙겨라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광주시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엇그제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후반기원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간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자리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뒤늦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자리를 바꾸는 등 혼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정순애(서구 2) 의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형일(서구 3)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맡바꾼 게 대표적이다. 송 의원이 투표 결과 신수정(북구 3) 의원에 게 석패함에 따라 ‘불편한 관계’가 형성돼 상임위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았던 박미정(동구 2) 의원이 현재 환복위원회에 소속됐지만, 상임위 변경을 고민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후반기 의장 선거와 원 구성을 놓고 신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집 의장 측의 주류와 비주류 측으로 갈렸다. 이들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후반기 원 구성도 늦어졌다.

공론의 장인 의회에서 정책과 현안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의회의 중심축인 상임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바꾸는 모습도 공인의 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의원들은 목은 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또 다시 맹목적인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한다면 유권자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無等鼓

호타준족(好打駿足). 야구에서장타력과 빠른 발을 모두 갖춘 선수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장타자는 발이 느리고 발이 빠른 선수는 단타 위주의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장타와 도루에 모두 능한 선수들이 있다. 타이거즈의 이중범은 1997년 ‘30-30클럽’(홈런·도루 모두 30개 이상)에 가입해 해태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NC의 테임즈는 2015년 KBO 리그 최초로 ‘40-40 클럽’의 문을 열었다.

야구에 ‘홀런-도루 클럽’이 있다면, 축구에는 ‘골-도움 클럽’이 있다. 특히 야구구 팀당 144~162경기를 할 때 축구는 그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8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득점과 도움 두 부문 모두 뛰어난 성적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한데 엇그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10-10 클럽’ 회원이 됐다. 리그 최정상급 선수들만 누리는 영예이며, 유럽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다. 올 시즌 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도, 단 두 명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코로나19 공백기를 딛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돋보인다.

‘10-10 클럽’도 어려운데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최근 22골 20도움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역사상 최초의 ‘20-20 클럽’을 열었다. 바리그를 통틀어서도 티에리 앙리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그는 개인 통산 700골을 돌파했고 라리가에서 역대 최다인 441골과 함께 184개의 도움을 기록한 ‘도움왕’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신의 동료 질 들뢰즈(1925-1995년)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들뢰즈라는 별개가 없었다. 아마도 어느 날 20세기는 들뢰즈의 시대로 불릴 것이다.” 그의 말대로 들뢰즈의 사유는 철학을 넘어 문학·사회학·예술 등 전반에 커다란 자극을 주고 있다. 푸코의 표현을 빌려 축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와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넘어 동료들까지 빛나게 하는 이들의 이타적인 플레이는 많은 선수들에 자극을 주고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 고

고하도 선착장에 판옥선을 띄우자

고광섭
목포해양대 해군사관학부 교수

최근 목표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해상 케이בל카 연결 등에 이어 전국 4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목포시는 맛과 흥의 도시를 강조하는 홍보에도 열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멀리 보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맛과 흥’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대에 따라 맛과 흥이 달라지고, 전국적으로 맛과 흥을 콘텐츠로 하는 관광지 수가 수없이 출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맛과 흥은 있되 흥이 없는 관광 콘텐츠가 지역 사회의 대명사가 되지 않을

까 우려되기도 한다.

유명 관광지인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나거나 역사적 유적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국가나 지역의 유적지나 유물은 선대가 물려준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나 지역민에게 자부심과 함께 흥을 심어 줄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맛과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한 이유이다.

몇 년 전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때나 최근 관광 거점도시 선포 행사에서도 일제가 남긴 근대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평가받았으나 고하도에 있는 420여 년 전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 지역 포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류로 보이는 역사적 기록의 흔적을 이유로 자신들이 관할하는 구역의 포구라고 수년 동안 주장하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 지자체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고하도는 6·25 참전 용사인 해군 예비

역 최영섭 용이 그의 저서 ‘민족성지 고하도’에서 우리 민족의 성지로 부를 만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체류했던 수군진은 주둔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대순으로 보면 여수의 전라좌수영, 통영의 통제영, 안판도(현 안좌도, 구 기좌도), 목포의 고하도, 완도의 고금도 등이었다.

고하도는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를 떠난 지 4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떠한 모습일까?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재건과 애국 충혼을 기리기 위한 흔적은 1708년 제 82대 수군통제사 오충주가 발의한 이래 14년 후인 1722년 8월 이순신의 5대 손인 제94대 수군통제사 이봉상이 세운 유허비가 유일하다. 이순신이고하도를 떠난 지 124년 후의 일이다. 이 유허비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식이 심한 상태로 읽기도 어려운 상태로 고하도 모퉁각 안에 보존되어 있다.

1974년 9월 24일 모퉁각을 포함한 큰산 일대는 ‘이충무공 유적지’로 도 지정 기념물 제 10호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주둔 시기 장군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령부 건물, 선창, 선소(전선 정박지) 등 당시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수군진의 형태나 규모 등을 가능할 수 있는 상징물 하나 없다. 과거 해군 관계관과 최영섭 용 등이 진터로 추정되는 곳에 최초로 세운 팻말 자리에 목포시장과 3함대 사령관 공동명의로 표기된 입간판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이다. 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목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맛과 흥, 낭만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흔이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자원이 충분하다. 이순신 장군이 목포 고하도를 떠난 지 420여 년이 지났지만, 여태껏 전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던 고하도 수군진을 대표하는 상징물 하나 없는 현실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목포시는 삼도수군통제영 고하도 수군진에 대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로 맛과 멋은 물론 호남 지역 구국의 흥을 융합한, 미래 지향적인 한반도 서남해역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을 꾀해야 한다. 목포 고하도에 조선수군 통제영 막사가 세워지고 선착장에 조선 수군 판옥선이 뜰 날을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드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0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